

‘율법과 복음’론과 ‘두 정부’론의 상관성과 사회윤리적 함의 탐색*

- 루터와 바르트를 중심으로 -

이창호 (장로회신학대학교 조교수)

I. 들어가는 말

II. 루터(Martin Luther)

1. ‘율법과 복음’론
2. ‘두 정부’론
3. 두 이론의 상관성 모색

III. 바르트(Karl Barth)

1. ‘율법과 복음’론
2. ‘두 정부’론
3. 두 이론의 상관성 모색

IV. 맺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34.05>

* 이 논문은 2016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ABSTRACT •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rine of Law and Gospel and that of the Two Governments and Its Social Ethical Implications: Focusing on Luther and Barth

Lee, Chang-ho(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rotestant soteriology is basically personal(or private) in that salvation is examined in terms of spiritual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individual believers. The doctrine of 'law and gospel' is crucial to doctrinal discussions about such personal salvation. Generally speaking, repenting sins, acknowledging the gospel and receiving God's justification in the work of the law are key to the 'salvation of justification by faith.' If this is the case, are law and gospel the revelatory medium that discloses God's will only about personal salvation? Luther addresses the civil(or social) use of the law which has to do with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regulating socio-political communities. While Barth honors Luther's emphasis on the continuity between the doctrine of law and gospel and that of the two governments, he develops his own notion of the continuity in a way that reinforces the unity of law and gospel (as well as the spiritual government and the secular government) in Christo-centric term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rine of 'law and gospel' and that of the two governments and to explore its social ethical implications. To fulfill this, I will explicate Luther's and Barth's doctrines of 'law and gospel' and of 'the two governments' and explore the correlation of these two doctrines in terms of their analogy(or similarities). Based on this theological and ethical investigation, I attempt to extrapolate some ethical implications and compare these two theologians, highlight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 two.

Key words: Doctrine of the two governments, law and gospel, Martin Luther, Karl Barth, Christian social ethics.

I. 들어가는 말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로티(Richard Rorty)는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지위를 대화중단자(conversation-stopper)로 규정하고 종교의 공적 영역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그러한 반대의 주된 논거는 종교의 본질은 사적이라는 것이다. 신적 존재와 개별 신자와의 개인적(혹은 사적) 관계만이 종교적 삶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인식인 것이다.¹⁾ 그렇다면 과연 그런가? 로티의 인식과 같이 종교는 사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의 본질은 공적이다. 개별 신자의 종교적 삶이란 사적 영역에서 뿐 아니라 사적 영역을 넘어서는 영역 곧 공적 정치사회적 영역 안에서도 중요하게 구성되고 또 영위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신자의 사적 영역을 관장할 뿐 아니라 그 개인이 연루되고 또 참여하는 공적 영역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신적 주권의 영역과 방식을 고려할 때 신앙의 삶은 사적일 뿐 아니라 공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신교 구원론은 기본적으로 개인적(혹은 사적)이다. 하나님과 개별 신자 사이의 개인적인 영적 관계의 관점에서 구원이 논의된다는 뜻에서 그렇다. 이 개인적 구원에 관한 교리적 논의에서 ‘율법과 복음’은 근본적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율법을 통해 죄를 인식·고백하고 복음으로 인도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함으로써 신적 의인(義認)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 이신칭의(以信稱義) 구원론의 요체이다.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은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는 계시의 통로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종교개혁가 루터(Martin Luther)는 율법의 시민적(혹은 사회적) 기능을 말하는데, 여기

1) Richard Rorty, *Religion as conversation-stopper*, *Philosophy and Social Hope* (London: Penguin Books, 1999), 168-74.

서 율법은 정치사회 공동체를 규율하는 법적 제도적 질서의 근본 토대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율법은 구원 받은 신자들의 교회 안팎의 삶(혹은 성과 속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윤리적 실천과 삶의 양식을 규율하고 안내하는 규범적 기준으로서 작용한다는 점, 세속 정부의 정치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정부를 세우신 뜻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교회는 율법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을 수행할 책무가 있다는 점 등을 루터는 강조한다. 요컨대, 율법과 복음은 이신칭의 구원의 계시적 중추(中樞)일 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와 정치사회 공동체를 포괄하는 전체 삶의 영역에서 신자들의 윤리적 실천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규범적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율법과 복음의 사회윤리적 함의를 생각할 때, ‘율법과 복음’론을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성찰하는 것은 기독교 사회윤리 담론의 성숙을 위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특별히 기독교 사회윤리 담론의 역사에서 기독교회와 신자들의 사회윤리적 삶을 논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으로서 ‘두 정부’론(혹은 ‘두 왕국’론)을 ‘율법과 복음’론과의 관계성의 관점에서 논구하는 작업 곧 두 이론 사이에 본질적인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점, 후자가 전자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는 점 등을 밝히는 작업은 구원의 삶의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통전적으로 해명하고 기독교 사회윤리를 성서 계시의 총체적 기반 위에 구축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러한 연속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탐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학자들로는 루터, 바르트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나중에 상술하겠지만, 루터는 두 이론 사이의 연속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두 정부’론을 ‘율법과 복음’론과의 유비(혹은 연속성)의 관점에서 또 성경을 근거로 하여 해명하려고 한다.²⁾ 바르트(Karl Barth)

는 루터와 마찬가지로 두 이론의 연속성에 대한 관념을 기본적으로 공유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중심적으로 율법과 복음 그리고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취한다. 바르트의 신학적 기획 안에서 한편으로 율법과 복음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내포된 은혜와 선의(善意)의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의 말씀’으로서의 통전성을 확보하며 다른 한편으로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에 뿌리를 두고 그리스도를 공동의 중심으로 삼는 동심원적 일체성을 형성하며 공동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지향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율법과 복음’론과 ‘두 정부’론의 상관성을 논구하고 거기에 담긴 사회윤리적 함의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루터와 바르트의 ‘율법과 복음’론과 ‘두 정부’론을 각각 다루고 이 두 이론 사이의 관계성을 유비(혹은 유사성)의 관점에서 주로 해명할 것이다. 또한 두 학자를 비교·평가하면서 본 논문이 추구하는 담론의 넓이와 깊이를 심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탐구의 과정을 통해 기독교 사회윤리의 중요한 규범적 실천적 통찰이 제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윤리적 제안을 할 것인데, 이 제안들이 기독교회와 신자들의 윤리적 삶을 통전적으로 진술하고 기독교 사회윤리를 성서 계시의 총체적 기반 위에 세우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2) William H. Lazareth, *Christians in Society: Luther, the Bible, and Social Ethics* (Minneapolis: Fortress, 2001), x; 손규태,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82-85, 362-69.

II. 루터(Martin Luther)

1. '율법과 복음'론

1) 신적 기원과 율법과 복음의 구원론적 통전성

〈기독교인의 자유〉에서, 루터는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곧 명령과 약속 혹은 율법과 복음이다.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삶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그러나 율법의 이러한 가르침의 기능은 우리가 추구하고 행해야 할 '선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제공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율법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과 무기력함을 일깨워준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 곧 복음이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 율법의 요구를 행함으로 얻을 수 없는 바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 이루고 또 얻게 해 준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음에 의존하게 하셔서 믿음이 있는 이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지만, 믿음이 없는 이는 그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명이 이 요구하는 바를 허락하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다. ... 하나님 홀로 명령하시고 또 홀로 이루신다."³⁾ 여기서 루터는 성경을 각각의 목적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하지만, 계명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계명을 이루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두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율법과 복음 사이의 통일성(혹은 연속성)은 하나님 말씀의 전체로서의 통일성에 달려 있으며, 전체로서 말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 기쁨부음 받았다는 것이

3) Martin Luther, *Freedom of a Christian*, in John Dillenberger (ed.),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New York: Anchor Books, 1962), 57-58.

루터의 인식인 것이다.

이러한 통일성은 이신칭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율법과 복음 모두를 설교해야 한다고 강조한 루터의 가르침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세례 요한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를 요청하는 율법 말씀만 설교하지 않았다. 그와 함께 복음 말씀도 설교하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양식을 따라, 설교자들은 둘 중에 하나만 전해서는 안 된다고 루터는 가르친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의 위협과 두려움에 의해 자신을 발견하고 또 겸손하게 된 이후에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위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⁴⁾ 하나님 말씀 수용을 통한 이신칭의의 과정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서의 율법과 복음의 통전성에 상응한다. 이 둘은 서로 묶여 있어 떼어 놓을 수 없으며 율법의 작용과 더불어 복음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고려하면서 구원론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오직 율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율법으로부터 촉발된 죄인식과 회개 그리고 복음 수용을 통한 용서와 칭의의 체험이라는 ‘율법과 복음의 통전적 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 율법과 복음의 기능 이해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루터는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시민적’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신학적 혹은 영적’ 기능이다. 전자는 죄악된 세상에서 범법과 악행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부모, 교사, 법률의 수행 등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신다. 이러한 시민적 기능은 한편으로 기본적인 사회질서와 평화와 같은 인간 공동체의 필수적 생존의 조건들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

4) 위의 글, 72-73.

기에 중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복음의 진보가 인간의 악행에 의해 방해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⁵⁾

루터에 따르면, 율법의 신학적 혹은 영적 기능은 참되고 순전하다. 율법은 죄악됨을 드러내고 또 “범법을 증가시킨다(increase transgressions).” 이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벌 선고에 이르게 한다. 그야말로 죄인들에게 율법이란 “죽음의 망치요 지옥의 천둥과 신적 진노의 번개로 역사해서 모든 교만과 무지를 산산조각 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그러기에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율법은 매우 유익하고 필수적이라는 것이 루터의 확고한 신념이다.⁶⁾

복음과 율법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루터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 역설한다. 복음은 죄인과 가장 무익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이다. 하나님의 자비로 부름 받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또 십자가의 승리로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 죄의 용서, 의로움과 영생 등을 받게 되었음을 굳게 믿는다.⁷⁾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인가? 율법의 ‘이중 기능’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 율법의 시민적 기능의 관점에서, 율법은 시민적 공적 영역에 관계한다. 복음은 인간 삶의 공적(혹은 외적) 토대에 관계하지 않고, 구원이나 하나님과의 사귄에 관계하는 영혼(혹은 내면)의 문제를 관장한다. 둘째, 신학적 기능의 관점에서, 율법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혀 주는데, 특별히 우리의 죄성과 유한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준다. 복음은 죄용서와 칭의의 은총을 가져다준다. 율법 자체에는 그 어떤

5) Luther, *Commentary on Galatians*, in John Dillenberger (ed.),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New York: Anchor Books, 1962), 139-40.

6) 위의 책, 140-41.

7) 위의 책, 144-45.

치유와 구원의 능력이 없다. 복음이 역사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전체성 안에서 율법과 복음은 각각의 기능에 따라 다르게 역사한다.

2. ‘두 정부’론

루터는 정치적 권위로서의 세속 왕국(혹은 세속 정부)과 영적 권위로서의 그리스도 왕국(영적 정부)을 선명하게 구분한다. 세속 왕국은 창조 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이다. 다시 말해, 세속 왕국의 기원은 신적 위임에 있다. “이러한 형벌적인 법적 통치(penal law)는 이 세계의 시작으로부터 존재했다. 가인이 그의 동생을 살해했을 때 자신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은 특별히 그러한 일을 금지시켰고 칼을 쓰는 것을 막아 그의 생명을 보존코자 하셨던 것이다(창 4:14 이하). 만일 살인자들이 그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담으로부터 보고 듣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러한 공포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⁸⁾ 이 세상이 오직 참된 신자들 곧 그리스도 왕국에 속한 이들로만 구성된다면 하나님은 다른 왕국(혹은 통치적 권위)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참된 신자들은 참으로 드물기에, 하나님은 신자들을 포함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 존재들을 위한 다른 왕국 곧 세속 왕국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⁹⁾ 이런 맥락에서 루터는 세속 왕국을 세속의 법이 아닌 복음으로 다스리려 하다 보면 악의 세력이 준동하여 사회를 무질서와 혼란에 빠질 수 있고 또 복음이 오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국

8) Luther, *Secular authority: to what extent it should be obeyed*, in John Dillenberger (ed.),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New York: Anchor Books, 1962), 366.

9) 위의 글, 370.

안에서 사람들이 법과 권위에 복종하게 하여 악행과 범법을 제어하고 생존에 필요한 평화와 질서를 확보하게 하신다.¹⁰⁾ 다시 말해, 세속 정부는 죄의 치유와 정의로운 사회 질서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사회적 체제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공동체를 향한 신적인 섭리의 사랑을 구현하신다.¹¹⁾

그리스도 왕국 역시 그 기원은 하나님의 위임에 있다. 다시 말해, 영적 정부도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왕국은 참된 신자들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왕국은 영적 정부를 가리키는데, 이 정부는 참된 신자들의 영혼을 다스리며 또 개별 신자들의 경건을 성숙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이는 정치사회적 관점에서의 어떤 기구는 아니다. 오히려 개별 영혼을 관계하며 세속 영역 속에서 살아간다. 말씀과 성례의 형태로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의해 세워지고 또 유지된다. 정치적 권위가 강제력으로 인간과 인간 공동체를 다스린다면 영적 권위인 그리스도 왕국은 참된 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말씀에 비추어 죄를 깨닫게 하게 회개하여 복음을 수용하게 하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한다.¹²⁾ 그리스도 왕국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사랑의 명령 곧 이타적 자기희생과 무저항 비폭력의 사랑의 명령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 가르침을 신자들에게 선명하게 인식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기 때문이다.¹³⁾

그리스도 왕국 백성들은 세속 왕국에 속하지 않지만 세속 왕국에 살

10) 같은 글.

11) William H. Lazareth, 앞의 책, 44.

12) 손규태, 앞의 책, 183.

13) Luther, *Secular authority*, 369.

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루터는 그리스도 왕국 백성들이 세속 정부의 공공선에 이바지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가르친다. 이는 세속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헌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루터의 신념을 반영한다. 다만 세속 정부가 그들의 이웃들의 삶에 유익한 한에서 세속 정부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독교인들이 세속 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이웃 사랑의 동기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신자들이 세속 정부의 공적 과업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러한 참여는 자기애적(自己愛的)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⁴⁾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세속법과 강제력의 사용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된다면 일종의 사랑 실천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강제력(혹은 칼)은 온 세상에 유익할 수 있는데, 평화를 유지하고 죄를 징벌하며 또 악행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리하여 강제력의 사용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세금을 내고 정치적 권위를 존중한다. 또한 세속 정부를 섬기고 도우며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자 한다.”¹⁵⁾

루터는 세속 권위의 한계를 논하면서, 통치 영역의 관점에서 두 정부의 분명한 차이를 밝힌다. 세속 정부는 인간으로서의 생존과 정치사회적 실존을 위한 외적 물리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기능해야지, 오직 그리스도가 관장하시는 영적 정부의 일 곧 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이들과 그들의 영적(혹은 내적) 삶에 개입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에 관한 루터의 경고를 들어보자. “만일 세속 권력이 영혼의 문제에 법을 근거한 개입을 시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요 결국 영혼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¹⁶⁾ 다만 루터는 세속 권력이

14) 위의 글, 373.

15) 위의 글, 372-73.

16) 위의 글, 382-83.

신앙의 문제에 부당하게(혹은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하지만, 동시에 영혼의 일을 관장해야 할 영적 정부가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거나 종교적 영향력을 세속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어야 하겠다. 다시 말해, 정치권력의 교회의 고유한 영적 영역에 대한 부당한 개입도 문제이지만, 교회의 정치적 세속화와 세속 권력의 추구도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3. 두 이론의 상관성 모색

이제 두 이론 사이에 유비 혹은 유사성이 존재함을 밝히면서 이들의 상관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여기서 상관성은 둘 사이의 이론적 연속성을 내포하며, 특별히 ‘두 정부’론으로 전개되는 루터의 정치윤리는 ‘율법과 복음’론에 그 중요한 토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율법과 복음의 통일성의 원천적 근거는 하나님 말씀의 유일한 기원이 되신다는 점이듯이, 두 정부의 통일성은 이 둘을 기름 부어 세우신 궁극적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곧 이 두 경우 모두에 있어, 신적 기원과 위임이 연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말이다. 또한, 영역의 관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우리가 본 대로, 한편으로 율법의 시민적 기능은 정치사회 영역에서의 생존을 위한 외적 요건들과 관련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복음은 개인적 차원에서 신자의 영적 내면적 부분에 관계한다. 이는 ‘두 정부’론에도 적용된다. 한편으로 그리스도 왕국(혹은 영적 정부)은 인간의 내적·영적 영역을 관장하며, 다른 한편으로 세속 왕국(혹은 세속 정부)은 인간 실존의 외적 요건들 곧 생존을 위한 물질적 기반, 사회적 실존을 위한 기본적 질서와 평화 등의 요건의 확보와 증진을 위해 존재한다.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구원과 사회적 삶과 연관된 기독교인의 ‘정체성’의 관점이다.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실존이 율법과 복음 모두를 통해 결정되듯이, 기독교인의 역사적 사회적 실존은 그리스도 왕국의 권위 뿐 아니라 세속 정부의 권위 아래에서 형성되고 유지된다. 인간은 율법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수 없다. 율법 없이 우리의 죄성을 인식·인정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 기독교인들에게 율법과 복음은 둘 다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의 삶은 두 정부 모두를 필요로 한다. 두 정부는 구별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이 둘은 모두 현존하며 다른 한 쪽이 없이는 충분하게 그 본래적 기능과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왕국만이 통치한다면, “악에게 고삐를 풀어 주는 꼴이 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빗장을 푸는 셈이 될 것”이며, “세상은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¹⁷⁾ 그러기에 세속 정부는 필요하다. 더욱이 기독교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세속 정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루터의 권고를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대비적으로, 세속 정부만이 정치적 권위를 행사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위선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속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공적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적 지도자들과 봉사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루터는 강조한다.

17) 위의 글, 372.

III. 바르트(Karl Barth)

1. '율법과 복음'론

1) 하나님의 구원론적 결의의 관점에서 본 바르트의 율법과 복음 이해

바르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결의(eternal decree)에 기원을 둔다. 바르트에게 있어 이 하나님의 결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의 결정적인 토대이다.¹⁸⁾ 이 결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밖을 향한'(ad extra <아드 엑스트라>) 신적 행위들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인간과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자유롭고 또 한결같은 은혜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결의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죄악됨과 그 결과를 감당하시기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된 인간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기로 스스로 선택·결정하신 것이다.¹⁹⁾ 그러므로 이 결의의 관점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평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기쁨의 복음 곧 구원과 은혜의 신적 '선의(善意)'만을 내포하는 복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바르트의 죄론은 하나님의 영원한 결의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의 죄와 악의 실재를 허용하시는가? 바르트는 하나님의 자유에 근거하여 응답한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 자유로운 신적 의지의 결정 안에서 죄와 악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셨다. 관계적 실존을 신적 본질로 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밖을 향한 핵심적 활동으로서 피조물 인간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데, 그 언약의 대상인 인간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

18) Karl Barth, *Church Dogmatics*, II/2 (Edinburgh: T.&T. Clark, 1956-75), 94-195.

19) 위의 책, 94.

에서 스스로 인간의 죄와 악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신 것이다.²⁰⁾ 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언약의 파트너인 인간을 위하여 복과 생명과 구원을 선사하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의 죄 허용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혹은 결정)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긍정적 의지와 선택은 오직 그의 영광의 넘쳐남이며 인간의 복과 영생이다. 유희와 타락에 인간이 쉽게 넘어지도록 허용하신 것조차도(심지어 죄를 허용하신 것도) 언제나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뜻하신 것이다. ... 하나님은 그의 영광의 빛을 자신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 밖을 향해서도 비추도록 의지적으로 결단하셨기에, 인간을 이 영광의 증언자로 세우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셨기에, 오직 이런 까닭에 악을 의지적으로 허용하신다.”²¹⁾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적 명령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복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에 대한 자유로운 응답을 보장하기 위해 죄와 악을 허용하셨다고 볼 수 있다.²²⁾ 바르트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긍정적 의지가 지배적이고 하나님의 죄의 허용은 종속적이다.²³⁾

여기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르트에게 인간을 비롯한 피조세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의가 지배적이라는 점에 상응하여, 복음은 율법에 대하여 주도적 입지를 갖는다. 다시 말해, 율법의 의미와 기능은 복음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바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율법의 의미는 ‘지배적인’ 하나님의 긍정적 의지를 요체로 하는 복음의 빛 안에서 해명되어야 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현실

20) 위의 책, 168-85.

21) 위의 책, 170.

22) Herbert Hartwell, *The Theology of Karl Barth: An Introduction* (London: Duckworth, 1964), 122.

23) 위의 책, 172.

화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에서 그 본질적 의미와 기능을 찾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루터와 칼뱅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 바대로 ‘의롭다 인정하는 은혜의 복음’만이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다는 점을 필연적으로 인식하고 또 수용하게 하는 데 기여할 때 그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다. 바르트는 율법은 복음과 별개로 독립적 지위를 보유할 수 있는 성격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과의 연관성 속에서만 그 지위와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고 또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은 복음이 아닌 것처럼, 복음은 율법이 아니다. 율법은 복음 안에서 주어졌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과 함께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알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을 알아야 한다.”²⁴⁾ 이런 맥락에서 바르트는 율법과 복음 사이의 구분(혹은 차이)보다는 연속성(혹은 단일성)에 비중을 두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율법과 복음은 모두 은혜의 말씀이라는 관념의 빛 아래서 볼 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단일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바르트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정적으로 드러난 하나님 사랑의 계시이며 그 본질은 한 마디로 ‘은혜’이다. 복음의 빛으로부터 율법을 이해한다면 율법의 본질 역시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한다. 은혜의 말씀으로서 율법과 복음은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영원한 신적 결의 곧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구원의 언약을 맺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의 결의에 달려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율법은 구속사적 질서 곧 창조-화해-구속의 질서 안에서 은혜의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수용을 통한 구속

24) Barth, *Evangelium und Gesetz*, 5. Robert E. Willis, *The Ethics of Karl Barth* (Leiden: E. J. Brill, 1971), 152에서 재인용.

의 성취까지의 과정’의 관점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과정적 총체성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가 된다는 말이다.²⁵⁾

2) ‘칭의와 성화’ 론의 관점에서 본 율법과 복음 이해

바르트는 율법주의와 율법폐기론(혹은 무규범주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칭의와 성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 둘 사이의 구분과 연속성을 견지하면서 자신의 ‘균형’론을 전개한다. 먼저 구분으로 시작한다. 바르트에게 칭의와 성화는 원천적인 구원의 사건의 다른 두 양상이다.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 사건의 동일성을 견지하면서 그분의 인격과 사역의 관점에서 이 둘을 구분한다.²⁶⁾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인격 안에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는 점은 그의 참된 신성과 그의 참된 인간성이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나 이 둘이 서로 호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 인간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높임 받은 사람의 아들은 한 분이지만, 그 낮춤과 높임 받음은 동일한 것은 아니다.”²⁷⁾ 여기에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는 동일하지 않으며 어느 한쪽으로 포섭되거나 혼합될 수 없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²⁸⁾ 한편으로, 구분이 견지되지 않고 성화가 칭의를 포섭하여 종속의 관계가 되면 칭의의 교리는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칭의가 성화를 완전히 지배하여 성화마저도 법정적 의미에서의 의의 전가로만 이해된다면 성화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거

25) Robert E. Willis, *The Ethics of Karl Barth*, 152-53.

26) 이창호,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그 같음과 다름에 관한 신학적·윤리적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22(2011/12), 279.

27) Barth, *Church Dogmatics*, IV/2, 503.

28) 같은 책.

룩함을 향한 변화의 동기와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바르트는 이 둘 사이의 연속성을 말한다. 이 둘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포착하지 못한다면, 한편으로 기독교 구원론은 이른바 ‘값싼 은혜’ 신앙과 이에 연관된 정적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잘못된 행동주의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²⁹⁾ 이런 맥락에서 “그 안에서 이 둘이 함께 발생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에 참 하나님이며 또 참 인간이듯이,³⁰⁾ 칭의와 성화는 별개의 양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리고 함께’ 발생한다. 이 점에서 바르트의 견해를 루터와 칼뱅 사이의 어떤 지점에 위치시킬 수 있다. 균형을 맞추고자 하지만, 바르트는 율법주의를 좀 더 경계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성화보다는 칭의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하다. 칭의 받은 신자들의 거룩한 변화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맥락에서 통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바르트의 강조점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바르트는 성화의 과정에서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를 동일시하는 것을 경계한다. 다시 말해, 성화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목적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철저하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³¹⁾

칭의와 성화의 관계성의 관점에서 바르트의 ‘율법과 복음’론을 검토할 때 우리는 이 이론에 대한 좀 더 온전한 이해에 이를 수 있다. 칭의와 성화의 연속성을 견지하듯이 바르트는 율법과 복음의 연속성을 강조하는데, 무엇보다도 구원론적 맥락 안에서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긍정적 의도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치(혹은 연속성)

29) 위의 책, 505.

30) 위의 책, 507.

31) 이창호,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그 같음과 다름에 관한 신학적·윤리적 연구”, 280-81,

만을 강조했다. 때 칭의·일변도의 구원론과 도덕적 영적 변화를 배제하는 기독교윤리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지하면서, 바르트는 ‘율법 없는 복음’의 이론이 ‘값싼 은혜’론의 굳건한 토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율법과 복음 사이의 차이를 존중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핀 대로, 율법은 구속사적 질서와 복음과의 총체성 안에서 자기 의를 목적으로 하는 공로주의적 율법 수행의 무의미성을 밝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완성된다. 특별히 복음과의 연관성 속에서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주제는 ‘성자 예수를 통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해명된다.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스스로 그 율법을 완수하신 분이시다. 율법의 제정자와 완수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율법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완수하심으로써 인간은 율법의 굴레 곧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에서 율법을 수행함으로써 저주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자기애적(自己愛的) 율법 추구의 굴레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얻게 되었으며, 이 길을 따라감으로써 인간은 이제 자발적으로(혹은 참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에 봉사하게 되는 것이다.³²⁾

2. ‘두 정부’론

바르트의 두 정부론 곧 교회와 국가(혹은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에 관한 이론의 초기 단계를 탐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헌은 『로마서 강해』 제2판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적(的) 이해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속 도성으로 칭하는 세속 정

32) Robert E. Willis, 앞의 책, 154-55.

부는 악이다. 선으로서의 하나님의 도성과 대립적 관계에 있는 정부인 것이다. 다만 미묘한 차이는 존재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사적 정치 사회적 제도로서의 국가를 세속 도성과 동일시하지 않으며 국가 공동체 안에 신의 도성의 사람들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국가라는 정치 사회 공동체를 그 자체로 악으로 규정하지 않는 반면, 바르트는 악으로 규정한다. 악으로서의 국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그 본질적 기능을 수행한다. 하나님은 “[국가권력이라는] 질서가 인간의 악한 행동 (인간 행동 가운데 그 어떤 것이 악이 아닌 것이 있는가?)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세워 놓[으며], 이것을 위해 그 질서가 ‘세워짐을 받은 것이다.’”³³⁾ 하나님은 국가를 도구로 삼아 최악으로 점철된 인간의 역사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바르트의 이러한 관념은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비극적 경험을 통해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류와 세계 문명의 본질이 죄악됨에 있으며, 그 죄악됨이 역사적으로 첨예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현실화되어 폭발한 것이 세계대전이라는 것이다. 인류 공동체와 세계 문명의 악으로의 경도에 대해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심판을 행하신 것이며, 국가를 그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다고 바르트는 생각한다.³⁴⁾ 이 때 국가권력과 그 공적 권력의 수행자들은 “악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집행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용한다.³⁵⁾ 여기서 바르트는 전체 창조 세계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정 어린 섭리를 구현하는 통로로서 정치권력이 사회적 질서와 평화, 생존의 물적 기반 등을 마련한다는 목적론적 의미에서 국가의 정치사회적 순기능을 상정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신학적 관점에서 국가와 같은 정치사회 공동체가

33) Barth, *Der Römerbrief*, 조남홍 역, 『로마서 강해』 (서울: 한들, 1997), 748.

34) 김명용, “칼 바르트 신학에 있어서의 교회와 국가”, 이형기 외,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용인: 킹덤북스, 2010), 228.

35) Barth, 『로마서 강해』, 751.

순기능적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할 여지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교회는 그 존재론적 본질에 있어서 국가와 매우 흡사하다. 교회는 어느 정치사회 공동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도록 부름 받은 신적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죄악된 인류의 역사와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존재일 뿐이다. 김명용은 이 점을 적시한다. “인간들의 공동체인 교회 역시 신의 무덤에 불과하다. 국가이든 교회가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는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의 세계에 속하는 인간적인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간과 영원이 부딪히는 접점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는 있어도, 시간의 세계 속에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는 『로마서 강해』 제2판에 의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매개하는 도구가 아니다. 국가와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간적 세계의 상징들일 뿐이다.”³⁶⁾ 이렇게 볼 때, 『로마서 강해』에 드러나는 바르트 정치윤리에서 교회와 국가(혹은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 사이의 경계는 흐릿해진다. 특별히 인간과 인간 공동체를 사로잡고 있는 악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 분명한 연속성이 존재한다. 다만 국가권력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기능론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혀 두어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가 교회와 국가에 관한 바르트의 이론을 전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로마서 강해』 제2판 이후 바르트의 저작들에서 탐색할 수 있는 좀 더 발전적으로 전개된 개념과 사상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특별히 주목할 문헌은 “교회와 국가”(1938)와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시민 공동

36) 김명용, 앞의 글, 229-30.

체”(1946)이다. “교회와 국가”에서 탐지할 수 있는 바르트의 이해는 『로마서 강해』 제2판과는 달리 국가의 정치사회적 순기능의 가능성을 허용한다. 크게 두 가지 국가의 순기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치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국가의 공적 책무에 관한 것이다. 국가권력은 상대적 독립성을 가지고 그 권위와 목적을 실현해 나갈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며 또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국가권력이 예수 그리스도에의 소속됨과 본래적인 존재 목적을 망각하고 권력을 신비화한다거나 우상화한다면, 그 국가는 ‘악마적’ 권력으로 퇴락하게 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바르트가 국가권력이 늘 언제나 악마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³⁷⁾ 그에 따르면 국가의 악마적 퇴락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국가가 존재론적 기능적 본질에 충실하여 통치의 대상이 되는 정치사회 공동체 안에서 ‘정의로 통치적 기능을 수행하고 또 법적 체제와 질서를 온전히 유지·보존한다면’ 그러한 악마화를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유익하게 하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바르트는 강조한다.³⁸⁾ 이러한 국가의 순기능에 대한 이해는 루터적(的)이라 할 수 있는데, 곧 인간과 인간 공동체가 역사적 정치사회적 현실에서 직면하는 악과 폭력의 현실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필수적 토대가 되는 요소로서의 정의와 평화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바르트는 교회와의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국가권력이 수행해

37) Barth, *Church and state*, in Will Herberg (ed.), *Community, State, and Church* (Eugene, OR: Wipf and Stock, 2004), 118.

38) 위의 글, 118-19.

야 할 일종의 영적 책무를 말한다. 하나님 나라 전파와 확산의 매개체로서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요건이 있다. 이러한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바르트의 생각인 것이다. 바르트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까닭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는 디모데전서 2장(2절)의 증언을 언급하면서, 그 표현으로 다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왜 기독교 신자들의 공동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르트는 자유라고 답한다. 어떤 자유인가? ‘만인을 위한 역할 수행을 위한 자유’이다. 이 자유를 위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로 대표되는 세속 정부(혹은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 수행을 위한 사회적 여건 마련에 국가가 긍정적으로 기능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르트의 인식이다. 여기서 국가의 본질적 기능은 구성원들이 평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³⁹⁾

이와 대비적으로, 바르트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파와 확산이라는 영적 사명의 관점에서 고유한 책무를 부여 받은 공동체이다. 이러한 책무는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과업인 것이다.⁴⁰⁾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성 속에서 이해하는 바르트의 교회론의 기초는 그의 말씀의 신학에 있다. 이 말씀의 신학은 하나님 말씀의 삼중 형태 곧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 그리고 교회의 신앙적 신학적 가르침의 총화로서의 교의 등을 근간으로 한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 번째 형태는 교회론적으로 또 사회윤

39) 위의 글, 128-29.

40) 위의 글, 135-48.

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토대로 형성하고 축적한 교의적 가르침을 전수·교육·실천함으로써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바르트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교회는 고유한 말씀 사역을 통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혹은 반사하는) 영적 공동체인 것이다. 강제력을 통해 정의와 평화를 실현해야 하는 국가와 달리, 교회의 내적 삶과 외적 사명을 지배하는 동력과 원리는 힘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이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내포된 핵심적 가치로서 ‘사랑’을 구현하도록 부름 받은 역사적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다.

여기서 바르트는 교회와 국가(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의 구분을 견지한다. 각각 고유한 공적 책무를 부여 받았고 또 그 소명에 충실해야 한다. 국가는 교회의 복음 사명 실천을 위한 사회적 여건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점, 교회는 국가권력을 존중하고 국가의 고유한 정치사회적 책무의 온전한 수행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둘 사이의 협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바르트는 둘이 섞이는 것에 대해 좀 더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국가권력이 교회의 고유한 영역에 침해하거나 관여하는 것을 경계하고, 다른 한편으로 교회가 정치적 권력(혹은 권위)을 획득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부정적이다.⁴¹⁾

바르트의 후기 입장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저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이다. 여기서도 바르트는 복음 전파라는 영적 책무는 교회에게 돌리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정치사회적 조건 마련이라는 공적 책무는 국가에게 돌림으로써, 교회와 국가의 구분을 견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전의 저작들에서 드러나는 입장과 달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에서는 구분과 동시에 둘 사이의

41) 김명용, 앞의 글, 231-36.

연속성 혹은 일치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탐지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르트의 후기 입장(혹은 완숙한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둘 사이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바르트의 입장의 핵심적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바르트는 교회는 안쪽의 원(the inner circle) 그리고 국가는 바깥쪽의 원(the outer or wider circle)에 위치시키면서, 이 두 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의 연속성의 근원적 토대는 원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이다.⁴²⁾

이 점에서 바르트의 ‘두 정부’론은 그의 율법과 복음 이해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율법과 복음’론이 ‘교회와 국가’론 형성과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율법의 형벌적 사용을 통해 법률적 심판의 도구로 작동하는 정치체제로서 국가를 이해하는 국가론과 달리, 율법과 복음이 공히 기독교론적 질서 안에 있듯이 교회와 국가도 기독교론적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이 후기 바르트의 전형적 이해라는 것이다.⁴³⁾ 루터와 칼뱅의 정치신학의 핵심 질문은 정치사회 영역을 규율하는 규범적 기반으로서의 율법의 본성을 밝히는 것이다. 한편으로 루터는 율법의 정치사회적 기능을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에 제한하며, 다른 한편으로 칼뱅은 루터보다는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자취를 좀 더 찾으려 하지만 정치사회적 삶의 규범적 기반으로서(복음이 아닌) 율법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분명하다. 이와 대비적으로 율법은 복음을 들을 때에만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 복음이 율법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바르트에게 그리스도는 정치사회 영역의 주제요 목적이어야 하며, 율법 제정의 주관적 객관적 기초이어

42) Barth, *The Christian community and the civil community*, in Will Herberg (ed.), *Community, State, and Church* (Eugene, OR: Wipf and Stock, 2004), 154-60.

43) Barth, *Church and state*, 120-21.

야 한다.

여기에 담긴 함의를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자. 먼저 각 정부의 통치의 규범적 기반이라는 관점이다. 이전의 저작들에서 바르트는 국가의 구성하는 법과 제도의 인식론적 규범적 뿌리를 이성과 자연법에서 찾은 반면,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에서는 그 궁극적인 기반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둔다. 통치와 통치의 정당화의 근거를 이성과 자연법에 두는 입장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 궁극적 정당화의 근거로 설정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이성과 자연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기독교론·중심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와 국가의 공동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또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지향하지 않는 ‘자연법에 근거한 정치사회적 체제와 질서’는 온전치 못하며, 그러기에 자연법은 가장 깊고 중요한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 비로소 온전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르트의 생각이다.⁴⁴⁾

다음으로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의 기능과 목적의 관점이다. 바르트는 둘 사이의 구분을 강조할 때 기본적으로 목적(혹은 기능)의 관점에서 둘 사이의 구분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다. 곧 사회적 정의와 평화의 실현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세속 정부와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영적 정부의 구분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를 기점으로 바르트의 입장은 동일한 목적을 설정함으로써 둘 사이의 연속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교회도 국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 다만 하나님 나라 구현의 도구로서 교회와 국가의 ‘쓰임’

44) Barth, *The Christian community and the civil community*, 163-65.

의 방식은 다르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일차적인 도구라고 한다면, 국가는 이차적 혹은 간접적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며, 국가는 인간의 역사적 공동체의 형성과 존속을 위해 ‘외적이며 상대적이며 또 임시적인’ 정치사회적 목적 구현과 교회의 직접적 증언의 사회적 토대 마련에 기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실현에 참여한다.⁴⁵⁾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국가의 기능 수행에 있어서의 교회의 역할이라는 관점이다. 국가의 본질적 기능은 복음 전파가 아니며, 사실 국가는 복음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 바르트의 기본 인식이다. 국가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라는 점 또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에 교회는 국가의 이러한 무지를 벗겨 주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의미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⁴⁶⁾ 이러한 이해의 근본적 토대 역시 율법과 복음 이해이다. 바르트에 따르면, 복음은 인간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법적 체제와 질서를 위한 유일하게 참된 규범적 근거이기 때문에,⁴⁷⁾ 복음에 교회론적 본질을 두는 교회의 정치적 활동은 기독교 신앙의 공적 증언이어야 한다고 바르트는 강조한다. “교회의 정치적 활동을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공적 고백이 된다. 교회는 이러한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국가공동체가 중립성, 무지 그리고 이교주의로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공동 책임 수행에 매진하도록 이끌어가며, 그리하여 고유한 사명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를 하나님 나라를 닮게 하고 또 그리하여 국가의 의로운 목적들을 완수하게 하는 역사적 과정을 현실화한다.”⁴⁸⁾ 요컨대, 바르

45) 위의 글, 154-55, 157-60.

46) 위의 글, 167-68.

47) Barth, *Church and state*, 126-30.

트는 자신의 좀 더 완숙한 형태의 ‘교회와 국가’론에서 두 정부 모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으며 규범적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근거한다는 관념을 드러낸다. 또한 교회 뿐 아니라 국가도 간접적인 혹은 유비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3. 두 이론의 상관성 모색

바르트가 율법과 복음을 은혜의 말씀으로서 기독교적 총체성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려 한다는 점, 율법은 구속사적 질서와 복음과의 총체성 안에서 자기 의를 목적으로 하는 공로주의적 율법 수행의 무의미성을 밝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완성된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율법과 복음은 오직 한 가지 지향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점으로 삼는다는 의미에서 견고한 통일성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핀 대로, 바르트의 ‘두 정부’론은 ‘율법과 복음’론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후자와의 연관성 속에서 전자에 대한 좀 더 온전한 이해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서 바르트와 루터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탐지할 수 있다. 한편으로, 바르트는 두 정부 사이의 연속성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은 긍정하지만 세속 정부의 존재론적 기능론적 기반이 복음 보다는 율법에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국가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은혜의 복음의 도구로서보다는 법적 제도적 체제와 질서를 통한 심판과 규율의 장치로서 더 비중 있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다른 한편으로, 루터에게서 선명하게 탐지할 수 있는 대로 율법과 복음 그리고 세속 정부와 영적 정부 사이의 구분(혹은 분리)의 강조가 히틀러와 나치즘

48) Barth, *The Christian community and the civil community*, 171.

이라는 비극적 역사로 귀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엄중한 평가를 내린다.⁴⁹⁾ 바르트는 복음으로부터 율법을 분리시키는 것을 경계하듯이, 세속 정부를 영적 정부로부터 떨어뜨려 놓은 것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로마서 강해』 제2판 등 초기 입장을 살필 수 있는 문헌들에서 둘 사이의 구분을 말하기도 하지만, 후기의 완숙한 입장에서 바르트는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의 관계를 단일체적 구도 안에서 이해하려 하며 그러한 단일성(혹은 통일성)의 기반은 은혜의 복음, 복음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역설한다.

바르트는 영적 정부는 인간의 영혼의 삶을 그리고 세속 정부는 구성원들의 시민적 도덕적 삶을 관장한다는 식(式)의 이원론적 이해를 경계한다. 오히려 두 정부의 존재와 기능을 목적론적으로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를 공동의 목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바르트의 확고한 신념이다. 앞에서 본 대로, 하나의 중심을 공유하는 동심원들로서, 안과 밖에 위치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협력한다. 다만 ‘쓰임’의 형태가 다르다. 교회는 일차적(혹은 직접적) 도구이며 국가는 간접적 도구이다.

신자들은 두 정부 안에 역사적 실존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두 영역 안에서 신자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 두 정부가 공동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향성’이라는 관점에서 신자들은 이 둘이 공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방향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특별히 세속 정부의 공적 사명이 하나님 나라 구현에 있다는 점과 하나님 나라의 원천적 토대는

49) Barth, *First letter to the French Protestants*, in Alec R. Vidler (ed.), *Letter to Great Britain from Switzerland* (London: The Sheldon Press, 1941), 31-34.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점을 일깨워 주기 위해 정치사회적 영역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 참여를 일관성 있게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바르트는 루터와 다르다. 루터는 세속 정부는 그 규범적 제도적 토대로서의 율법 말씀에 상응하여 적절하게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바르트는 국가는 궁극적으로 복음 말씀에 그 존재와 기능의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율법은 복음을 들을 때에만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 복음이 율법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바르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사회 영역의 주제요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IV. 맺는 말

지금까지 루터와 바르트의 ‘두 정부’론과 ‘율법과 복음’론을 살피고 이 두 이론 사이에 유비(혹은 유사성)가 존재함을 밝히면서 이 둘의 상관성을 탐색하였다. 여기서 상관성은 둘 사이의 이론적 연속성을 내포하며, ‘두 정부’론을 통해 중요하게 전개되는 이 두 신학자의 사회윤리는 ‘율법과 복음’론에 그 중요한 토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제 필자는 이상의 탐구를 기반으로 하여 몇 가지 윤리적 제안을 할 것인데, 이 제안들은 구원의 삶의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통전적으로 해명하고 기독교 사회윤리를 성서 계시의 총체적 기반 위에 이론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구축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율법과 복음의 통전성에 상응하는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의 연속성의 관점에서의 제안이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에서 루터와 바르트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율법과 복음을 통전적으로 보고자 하는 신학적 경향을 이 두 신학자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었다. 그러한 통전성의 기반은 신적 기원과 위임에 있다. 마찬가지로

가지로, 두 정부 사이에 견지되어야 할 구분(혹은 차이)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둘 사이에 연속성이 있으며 또 그러한 연속성의 핵심적 근거는 두 정부를 세우시고 궁극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회윤리적 함의를 탐색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영적 정부에만 섭리적 애정과 주권적 뜻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세속 정부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과 섭리적 뜻으로 궁극적 주권을 드러내신다는 점이다. 세속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정치사회적 실존을 위한 요건 마련, 영적 정부의 영적 순례를 위한 기반 형성에의 기여,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적극적 참여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한 세속 정부의 공적 수행을 통해 현실화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상응하여, 기독교회와 신자들은 세속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주권을 존중하면서 세속 정부의 공적 수행을 격려하고 또 적절하게 협력·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율법과 복음의 엄격한 분리를 경계하듯이 두 정부의 극단적 분리를 단호히 반대하는 바르트의 입장은 사회윤리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기독교회의 사명이 세속 영역으로 기독교제국적(Christendom) 구도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영역으로부터 도피하거나 분리되어 세속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것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기독교회와 신자들은 신적 기원과 위임의 관점에서 세속 정부와 영적 정부 사이의 연속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세속 영역에 대한 애정 어린 섭리적 관심과 손길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건설적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율법과 복음의 구분과 두 정부의 통치 영역의 고유성의 관점에서서의 제안이다. 앞에서 본 대로, 루터와 바르트는 신적 기원과 위임의 빛

으로부터 율법과 복음의 통전성과 두 정부의 연속성을 견지하고자 한다. 다만 두 신학자 사이에 정도와 방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았다. 대략적으로 정리한다면, 바르트는 구분보다는 연속성 혹은 통일성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반면, 루터는 둘 사이에 적절한 구분이 견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세속 정부는 정치사회적 실존의 기반 마련과 강화라는 공적 책무에 충실해야 할 뿐 아니라 영적 정부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이바지할 때 그 본래적 존재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사회윤리적 구상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둘 사이의 일치나 연속성의 지나친 강조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정적 결과 곧 교회의 정치권력화나 세속 권력의 영적 영역에 대한 부당한 침해 등의 결과를 고려할 때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의 구분도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루터의 사회윤리적 조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기독교회가 세속 영역에 대한 종교적 지배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개별 신자와 교회 공동체의 신앙적 자유와 고유한 영적 권한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적절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둘 사이의 구분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제안은 기독교 구원론과 사회적 삶의 연관성의 빛에서 본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인의 구원론적 정체성은 율법과 복음 중 어느 하나의 작용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이 함께 총체적으로 작용할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루터와 바르트를 통해 우리는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두 신학자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보았다. 루터는 성화를 칭의의 자동적인 결과로 보는 인식에 상응하여 복음 안에서의 의롭다 함을 받는 경험을 성화의 원천으로 강조함으로써 복음의 역사에 좀 더 큰 비중을 허용하는 반면, 바르트는 율법과 복음이 총체적으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한다는 일체론적 이해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중심적 정체성 이론을 두드러

지게 전개한다. 구원 받은 이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한 신자들의 삶의 영역은 영적 정부에 제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세속 정부도 그들의 본질적인 삶의 자리이며, 그들의 정체성은 영적 정부 안에서의 실존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세속 정부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도 형성된다. 율법의 시민적(혹은 사회적) 기능의 관점에서 기독교인들의 공적 영역에서의 실존을 위해 ‘율법’의 정신과 규범적 지향을 내포하는 정치사회적 법적 체제와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들의 정치사회적 실존을 위해서 정치사회적 규범과 법의 존중과 그것의 근간이 되는 시대정신과 규범적 지향의 내면화가 요구된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은 세속 정부의 작용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특별히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가 공동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기능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바르트의 사회적 이상을 고려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세속 정부 안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삶과 실천은 그들의 ‘신자’로서의 정체성 형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오늘날의 세계는 바르트가 호흡하며 살았던 세계와는 다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세속 정부도 하나님 나라의 도구여야 한다는 사회적 신조를 역설하고 또 그 신조를 세속 영역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구체적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었던 바르트의 세계와도 다르다. 대략적으로 말해, 성과 속(혹은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의 적절한 구분이 존중되고 종교적으로 다원적 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래서 다원성 인정이 사회적 실존을 위해 필연적 조건이 되어 가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바르트의 사회적 이상을 그야말로 ‘이상적인’ 이론으로 머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비판적 전망이 나오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주의적 진단과 평가를 소홀히 여길 수 없다 하더라도, 기독교 사회윤리 구상에 있어서 여전히 존중해야 할 사회적 ‘이상’이

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율법과 복음이 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듯이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의 궁극적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 주권은 임의성과 우연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뜻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회와 신자들은 세속 정부의 정체성과 기능을 논할 때, 한편으로 세속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주권의 목적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고(바르트) 다른 한편으로 세속 정부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 어린 섭리를 존중하면서 '이웃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세속 정부와 정치사회 공동체 안에서 공존하는 이웃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공적 소명과 정체성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루터).

참고문헌

- 김명용. “칼 바르트 신학에 있어서의 교회와 국가” 이형기 외.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용인: 킹덤북스, 2010.
- 손규태.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이창호. “교회의 공공성에 관한 신학적 윤리적 탐구”. 『기독교사회윤리』 29: 141-189.
- _____.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그 같음과 다름에 관한 신학적·윤리적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22(2011/12): 265-301.
- 최윤배. 『갈뱅신학 입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2.
- Barth, Karl, 조남홍 역. 『로마서 강해』. 서울: 한들, 1997.
- Barth, Karl. *Church Dogmatics*, II/2. Edinburgh: T.&T. Clark, 1956-75.
- _____. *Church and state*. In Will Herberg (ed.), *Community, State, and Church*. Eugene, OR: Wipf and Stock, 2004.
- _____. *The Christian community and the civil community*. In Will Herberg (ed.), *Community, State, and Church*. Eugene, OR: Wipf and Stock, 2004.
- _____. *First letter to the French Protestants*. In Alec R. Vidler (ed.), *Letter to Great Britain from Switzerland*. London: The Sheldon Press, 1941.
- Hartwell, Herbert. *The Theology of Karl Barth: An Introduction*. London: Duckworth, 1964.
- Lazareth, William H. *Christians in Society: Luther, the Bible, and Social Ethics*. Minneapolis: Fortress, 2001.
- Luther, Martin. *Secular authority: to what extent it should be obeyed*. In John Dillenberger (ed.),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New York: Anchor Books, 1962.
- Luther, Martin. *Freedom of a Christian*. In John Dillenberger (ed.),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New York: Anchor Books, 1962.
- _____. *Commentary on Galatians*. In John Dillenberger (ed.),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New York: Anchor Books, 1962.
- Willis, Robert E. *The Ethics of Karl Barth*. Leiden: E. J. Brill, 1971.

논문투고일: 2016년 2월 29일

심사개시일: 2016년 3월 11일

게재확정일: 2016년 4월 09일

 • 국 문 초 록 •

개신교 구원론은 기본적으로 개인적(혹은 사적)이다. 하나님과 개별 신자 사이의 개인적인 영적 관계의 관점에서 구원이 논의된다는 뜻에서 그렇다. 이 개인적 구원에 관한 교리적 논의에서 ‘율법과 복음’은 근본적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율법을 통해 죄를 인식·고백하고 복음으로 인도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함으로써 신적 의인(義認)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 이신칭의(以信稱義) 구원론의 요체이다.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은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는 계시의 통로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율법의 시민적(혹은 사회적) 기능을 말하는데, 여기서 율법은 정치사회 공동체를 규율하는 법적 제도적 질서의 근본 토대가 된다. 바르트는 루터와 마찬가지로 ‘율법과 복음’론과 ‘두 정부’론의 연속성에 대한 관념을 기본적으로 공유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중심적으로 율법과 복음 그리고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취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율법과 복음’론과 ‘두 정부’론의 상관성을 논구하고 거기에 담긴 사회윤리적 함의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루터와 바르트의 ‘율법과 복음’론과 ‘두 정부’론을 각각 다루고 이 두 이론 사이의 관계성을 유비(혹은 유사성)의 관점에서 주로 해명할 것이다. 또한 두 학자를 비교·평가하면서 본 논문이 추구하는 담론의 넓이와 깊이를 심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탐구의 과정을 통해 기독교 사회윤리의 중요한 규범적 실천적 통찰을 얻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윤리적 제안을 할 것인데, 이 제안들이 기독교회와 신자들의 윤리적 삶을 통전적으로 진술하고 기독교 사회윤리를 성서 계시의 총체적 기반 위에 세우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두 정부’론, 율법과 복음, 마르틴 루터, 칼 바르트, 기독교 사회윤리
